

학술 포럼: “치매, 예방과 치료가 가능한가?”의 개최 의의와 방향

나덕렬 (성균관의대, 신경과학)



치매란 무엇인가?

치매란 인지능력이 정상이던 성인에서 후천적 뇌질환이나 손상에 의해 인지능력이 저하되고 이로 인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 최근 치매의 조기 진단이 중요해지면서 경도인지장애라

는 용어가 생겼는데 이는 치매의 전 단계로서 인지 기능 검사에서 기억력 등 인지장애가 있으나 경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일상생활을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치매를 일으키는 원인 질환은 50여 가지 이상이다. 이를 흔히 세 그룹으로 나눈다. 즉 1) 알츠하이머병과 같은 퇴행성 치매, 2) 혈관치매, 3) 그 밖의 치매(주로 고쳐지는 치매)로 나눈다. 각각 차지하는 비율은 대략 60%, 20%, 20%정도다.

치매의 사회경제적 중요성

노인 인구가 늘면서 치매가 급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차지 하는 비율이 2000년에 7.2%로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고, 2010년에는 11%로 증가하였으며, 2020년에는 15.7%, 2030년에는 24.3%에 이르러 초고령화 사회가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러한 평균연령의 증가는 치매 유병률의 증가 및 이로 인한 진료비의 증가를 가져 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미 연간 총 진료비에서 2010년 기준 8,100억원으로 노인성질환 중 2위를 차지했던 치매 진료비는 국가의 총 치매비용을 증가시켜 현재 8조 7천억 원에서 10년마다 두 배씩 증가하여 2020년 18조 9천억 원, 2030년에는 38조 9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치매가 사회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진료비

의 증가뿐 아니라, 독립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치매환자를 돌보기 위한 환자 가족 및 사회의 비용으로 이어진다. 현재 전세계적으로 볼 때, 치매의 사회적 비용은 암, 심장 질환, 뇌졸중의 세가지 질병을 모두 합한 비용을 초과하고 있고, 따라서 미래에 치매가 사회경제적으로 미칠 영향은 엄청날 것으로 생각된다.

치매는 예방이 가능한가?

치매의 일차 예방은 치매를 일으키는 위험요소를 조절하는 것이다. 최근 연구에 의하면 혈관치매를 일으키는 위험요소가 알츠하이머병의 위험요소로도 작용한다고 한다. 알츠하이머병과 혈관치매 등 치매의 모든 위험 요소를 없애려한다면 잘못된 식습관, 영양부족, 운동 부족, 비만, 담배, 술, 당뇨, 고혈압, 심장병, 고지혈증, 만성 스트레스, 화병, 우울증, 사회 활동 부족, 수면 부족, 수면 무호흡증, 저학력, 두뇌 활동 부족, 반복되는 뇌외상 등이다. 특히 아주대 의대 예방의학 교실 이윤환 교수는 전세계 1만 2천개의 논문을 systematic review 기법을 사용하여 인지 건강 수칙을 발표하였는데 (International Psychogeriatrics, 2010), 이를 PASCAL로 요약하였다(P: Physical activity, A: Anti-smoking, S: Social activity, C: Cognitive activity, A: Alcohol in moderation, L: Lean body mass and healthy diet).

현재 치매 치료

첫째, 고칠 수 있는 치매가 있음을 간과해서는안된다. 치료가 가능한 치매는 일반적으로 전체 치매의 10-20%를 차지한다. 치료가 가능한 치매를 없애려하면 뇌종양, 경막하출혈, 수두증, 뇌전증, 비타민 부족증, 갑상선질환, 만성간

질환, 만성신부전증, 윌슨병, 신경매독, 진균성 뇌수막염, 약물에 의한 치매, 알코올성치매, 우울증 등이다. 둘째, 혈관치매는 뇌혈관질환에 대한 위험 요소를 제거하고 항혈소판제를 사용하는 경우 더 이상 진행을 막을 수 있는 치매다. 그러므로 우선 혈관치매의 위험인자로 알려진 고혈압, 당뇨병, 고지질증, 흡연, 심장질환, 비만, 운동부족 등을 조절해야 한다. 셋째, 행동장애에 대한 약물 치료다. 중기나 말기 치매 환자들은 공격성, 우울증, 망상, 환각, 불안초조, 충동억제불함, 식습관 변화, 수면 장애 등 다양한 행동장애를 보이는데, 이는 대부분 약물로써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넷째, 알츠하이머 병에 대한 인지기능 치료제다. 뇌 속에 기억과 관련된 신경전달 물질인 아세틸콜린이 있는데, 이것의 농도를 올리는 약물이 현재 쓰이고 있다(도네페질, 갈란타민, 리바스티그민). 이와 다른 작용을 가진 약물로서 NMDA 수용체를 억제하는 메탄틴이라는 약물이 사용되고 있다. 네 가지 약물들은 효과가 있긴 하지만, 획기적이지 않다. 이런 약을 복용해도 병의 진행이 중지되거나 증세가 호전되지는 않는다. 다만 빠르게 나빠지는 것을 막아 줄 뿐이다. 다섯째, 비 약물 요법을 들 수 있다. 여기에는 인지치료, 운동치료, 음악 치료, 미술 치료, 원예 치료, 작업 치료, 웃음치료, 명상치료 등이 있다.

향후 방향은 역시 “조기 진단과 조기 치료”

치매 극복에 관한 가장 난제는 퇴행성 치매의 대표적인 질병인 알츠하이머병의 극복이다. 알츠하이머병은 뇌속에 아밀로이드라는 이상단백질이 침착하면서 생기는 병인데, 최근 연구 결과 조기 진단이 가능해 졌다. 첫째, 뇌척수액에서의 아밀로이드 양의 변화다. 가족성 알츠하이머병 연구인 DIAN연구에 의하면 치매 증상 발생 전 10-15년 전부터 이미 뇌척수액의 아밀로이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한다고 한다. 둘째, 아밀로이드 PET의 출현이다. 현재 세 가지 compound(Florbetapir, Flutemetamol, Florbetaben)이 미국 FDA승인을 받았고 국내에 곧 상륙할 예정이다. 최근 아밀로이드 펩트 연구에 의하면 인지능력이 정상인 노인의 20-30%, 경도인지장애의 50-60%, 알츠하이머 치매의 90%이상에서 아밀로이드 침착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경도인지장애에서 아밀로이드 양성인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치매로 발전할 가능성이 2.6배 정도 높

고, 정상인지군에서는 아밀로이드 양성인 사람이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인지능력의 저하를 보일 가능성이 18배나 높기 때문에 알츠하이머병의 조기진단에 사용될 수 있다. 셋째, 혈액 검사에 의한 알츠하이머병 진단법은 현재 전세계적으로 연구중인데 아직 가시화가 되지 않았다.

이와 같이 조기 진단은 속도를 내고 있는데 비해, 알츠하이머 치료제 개발은 답보 상태다. 기존 알츠하이머 치료제들은 뇌속의 아밀로이드를 제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병의 진행을 바꾸지 못한다. 따라서 미래 치료제들은 뇌속의 아밀로이드나 tau 단백을 변화 시켜야 하고, 현재 개발되는 약물들은 다음과 같다. 1) 아밀로이드 생산을 줄이는 약물, 특히 secretase inhibitors; 2) 아밀로이드 응집을 억제하거나 응집된 것을 푸는 약물, 3) 아밀로이드 clearance을 촉진하는 약물: active or passive immunotherapy; 4) tau protein phosphorylation or fibrillarization에 작용하는 약물 등이다. 안타깝게도 최근 주목을 받았던 아밀로이드 백신 개발이 3상에서 실패를 하고 있으나, 그 이유 중의 하나가 너무 진행이 된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이라는 해석을 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초기 치매 환자 또는 경도인지장애 환자등을 대상으로 아밀로이드 백신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또 다른 치매 치료제로서 줄기세포를 들 수 있다. 최근 중간엽 줄기세포를 실험 동물에 주입을 하면 뇌속의 아밀로이드가 감소한다는 연구들이 나오고 있다. 따라서 인간의 뇌에 주입을 했을 때 같은 효과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남아 있다.

결론

우리나라는 뇌영상을 이용한 임상연구에서 선진국에 견줄 만한 논문을 내고 있다. 또한 좁은 지역에 많은 인구가 모여있기 때문에 임상연구를 할 때 단시간에 많은 환자를 모을 수 있고, 구미 지역에 비해 적은 비용으로 수준 높은 임상연구를 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가 조기 진단을 위해 MRI, PET원천기술이나 혈액에서의 진단 biomarker를 개발하는데 대한민국 의학한림원이 선도적 역할을 해야한다. 치매 조기 치료제 개발면에서는 신약 개발에 투자를 해야 함과 동시에 우리나라가 외국보다 앞서 있는 줄기세포 치료제 개발에 과감한 투자를 해야 한다. 일본 경우 줄기세포에 관한 규정이 최근 대폭 완화되어 줄기세포 치료가 활성화 되고 있다.

의학한림원 법적 근거 마련 추진



〈문정림 의원〉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의 설립근거를 마련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임의단체에서 법정단체로 재탄생시키는 것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춘진 보건복지위원장과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16일 대표 발의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과학, 공학 및 의학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관련 분야별 전문인들이 모인 최고의 학술단체에는 한국과학기술한림원, 한국공학한림원, 대한민국 의학한림원 등이 설립돼 있다.

국내 한림원 중 유일하게 설립과 관련한 법적 근거가 없는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을 위의 법으로 이를 인정함으로써 각종 지원을 하기 위한 방안이 추진된다.

이 중 과학기술한림원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9조', 공학한림원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40조'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지만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의 경우 다른 한림원과 달리 법적 근거가 없다.

문 의원은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은 의학 및 관련 전문분야 연구 진흥의 기반을 조성하고 의학 및 국민건강에 관한 정책에 대한 자문·건의 등을 하기 위해 설립된 단체이며, 설립과 관련한 법적 근거가 없어 의학의 지속적인 발전과 선진화를 효과적으로 유도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문 의원은 의료법에 의학한림원 설립근거와 사업범위, 정부 지원근거 등을 신설하는

개정입법안(의료법 52조 2 및 92조 3항 7호 신설)을 대표발의하였고, 이를 통해 의학 및 관련 전문분야의 아카데미로서의 활동을 적극 장려하고 국내외 교류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개정안에는 김명연, 권성동, 안홍준, 이완영, 이만우, 류지영, 김성찬, 강기윤, 김진태, 박윤옥, 이인제, 하태경, 김춘진 의원 등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문 의원은 "의학한림원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의학한림원의 지위강화 및 역할 증진을 도모하고 의학발전과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입법안의 세부내용을 보면, 먼저 '의학 및 관련 전문분야 연구·진흥 기반을 조성하고, 우수한 의학인 등을 발굴·활용하기 위해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을 둔다'는 설립근거를 신설한다.

또 한림원의 사업범위도 법률에 구체적으로 정한다.

의학연구진흥에 필요한 조사·연구 및 정책자문, 의학분야 별 중장기 연구 기획 및 건의, 의학 및 관련 전문분야의 국내외 교류협력사업, 의학 및 국민건강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관한 정책자문 및 홍보, 의학인의 명예를 기리고 보전하는 사업, 복지부장관이 의학발전을 위해 지정 또는 위탁하는 사업 등이 그것이다.

개정안은 또 복지부장관이 한림원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한다.

아울러 한림원이 아닌 자가 이 명칭이나 유사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위반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제5회 학술포럼 개최 보고

대한민국의학한림원에서는 학술포럼을 열어 국민의 생명과 삶의 질에 악영향을 미치는 질환에 대해 올바른 인식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예방·치료

에 대해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

2014년 9월 18일 서울대병원 암연구동 이견희홀에서 열린 제5회 학술포럼 '방사선과 건강'에서는 방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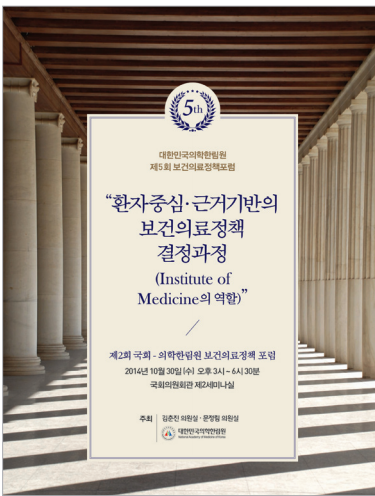


이 포괄적으로 다루졌으며,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방사선 노출에 대한 위험과 부작용과 관련한 잘못된 정보들이 무차별적으로 전달되면서 방사선 피폭에 대한

선의 역사를 비롯해 인체에 미치는 영향, 관련 기구의 태동, 우리나라 관리체계 등

국민적 공포심이 형성되어 꼭 필요한 방사선 검사를 기피하거나 '의료방사선'에 대한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추진되고 있는 의료방사선에 대한 잘못된 규제 법안이 추진되고 있는데 대해 우려와 방사선을 둘러싼 논란에 대하여 풀어보았고, 참석자들은 "환자선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선량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각 의료기관별로 검사정보와 선량정보를 취합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유용성이 없고, 의료기관에 업무만 늘릴 뿐만 아니라 부정확한 개인선량 관리보다는 의료기관별 관리로 정책 방향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제5회 보건의료정책포럼 개최 안내



개최합니다.

이번 보건의료정책 포럼에서는 IOM의 직전회장인 Harvey V. Fineberg 교수를 Plenary lecturer로 초빙하여 보건의료정책 결정과정에 대해 미국의학한림원의 경험을 듣고 보건의료에서의 바람직한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해 실제적 사례와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 논의합니다. 이를 통하여 향후 우리나라에서 정부기관을 포함한 보건의료계 전체에서 환자중심-근거기반의 의사결정과정이 자리 잡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대한민국의학한림원에서는 정책 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환자중심·근거기반의 보건의료정책 결정과정(미국의학한림원(Institute of Medicine)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아래와 같이 보건의료 정책포럼을

일 시 : 2014년 10월 30일 목요일 15:00-18:30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주 제 : 제2회 국회-의학한림원 보건의료정책 포럼
 “환자중심·근거기반의 보건의료정책 결정과정(미국의학한림원(Institute of Medicine)의 역할)”
 주 최 : 김춘진 보건복지위원장실, 문정림의원실, 대한민국의학한림원 공동주최
 좌 장: 박병주 교수(서울의대 예방의학)
 Plenary Lecture : Harvey V. Fineberg교수(미국의학한림원(IOM) 직전회장, 하버드의대)
 Health Policy Decision Making : Roles of the Institute of Medicine in the U.S.
 주제발표 : 이종구 교수(서울의대, 전 질병관리본부장) 보건의료정책 결정과정 참여 경험
 문정림 의원(국회의원, 보건복지위원) 보건의료정책에서의 국회 역할
 신의철 교수(가톨릭의대) 바람직한 보건의료정책 결정과정
 지정토론: 최재욱 교수(고려의대,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장)
 허대석 교수(서울의대, 전 한국보건의료연구원장)

안형식 교수(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장, 근
거중심의학연구소장)

이진한 기자(동아일보)

제36회 의학용어 원탁토론회 개최 안내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은 일반 국민들이 널리 쓰거나, 전문용어라도 전문가 사이에 의견이 달라 표준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의학 관련 전문용어를 선별하여, 이들에 관한 전문가들의 심층토론을 거쳐 의학계뿐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확산될 수 있는 용어를 확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의학용어 원탁토론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번 제36회 의학용어 원탁토론회는 ‘우리나라 전문용어 정책’을 주제로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관심있는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일시 : 2014년 10월 29일 오후 3시

장소 : 대한의사협회 3층 회의실(서울 용산구 이촌1동 소재)

주제 : 우리나라 전문용어 정책

주제발표 : 송지영 교수(경희의대 정신과학)

지정토론자 : 지제근 교수(서울의대 병리학)

김문오 연구관(국립국어원)

제12회 화이자의학상 시상 안내

대한민국의학한림원에서는 대한민국 의학발전 및 인류 건강복지에 기여한 의학자를 발굴하고 연구의욕을 고취하고자 ‘제12회 화이자의학상(Pfizer Medical Research Award)’을 시상한다. 화이자의학상은 연구자의 우수 논문에 대한 시상으로 수상자는 총 2명(기초의학상 1명, 임상의학상 1명)을 선정하여 상패와 각

3,000만원의 상금을 수여한다.

제12회 화이자의학상 수상자로 남석우 가톨릭의대 교수(병리학)가 기초의학상, 고원중 성균관의대 교수(내과)가 임상의학상 수상자로 선정되었고, 시상식은 2014년 11월 7일(목) 저녁 6시에 조선포탈에서 시행한다.

11차 분회총회 개최 안내

대한민국의학한림원에서는 의학의 전문분야별로 제1분회부터 제7분회까지 7개 분회를 두고, 각 분회에는 전공분야별로 분과를 두고 있습니다. 분회총회는 분회 소속된 분과 회원들이 모여 각 분회의 신입회원을 선출하기 위하여 정회원 후보자로 추천된 분들의 서류를 심사하는 자리입니다. 이에 2015년 임기정회원 선출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분회총회를 개최하고자 하오니 회원 여러분께서는 바쁘시더라도 부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 시 : 2014. 11. 19(수) 오후 4시~5시

장 소 : 가톨릭의대 성의회관 8층 START 의학시물레이션센터(서초구 반포동 소재)

회원 동정



김중현 (임기정회원)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신경외과학교실, 김중현 교수, 대한뇌종양학회 회장 취임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신경외과 김중현 교수가 지난 6월 27-28일 서울 아산병원 연구관에서 열린 '제24차 대한뇌종양학회 정기학술대회 및 제8차 한중 친선 학술대회'에서 대한뇌종양학회 회장으로 취임했다. 대한뇌종양학회는 대한의학회의 회원학회로 1991년 대한뇌종양연구회로부터 출발하여, 1999년 대한뇌종양학회로 개칭 승인되었다. 현재 학술대회와 뇌종양 연수교육, 뇌종양 증례 집담회 개최 및 공식학술지인 Brain Tumor Research & Treatment (BTRT)의 발행 등 국내외 뇌종양질환 진료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단체이다.



김현철 (임기정회원)

지난 6월26일(목) 오후 7시 반 대구 문화예술회관 비슬홀에서 김현철 내과 개원 2주년을 기념하는 환우를 위한 사랑의 음악회가 환자와 가족, 그리고 음악 동호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학생시절부터 음악을 사랑해온 김 원장은 르네상스음악에 관한 저서를 3권, 그리고 바로크음악을 창시한 몬테베르디에 관한 저서를 출간할 정도로 클래식 음악에 관한 애정과 지식이 특별한 것으로 알려진 김원장은 그동안 간간히 음악 칼럼니스트, 평론가로도 활동해 왔다.



서유현 (임기정회원)

서유현 회원(한국뇌연구원, 원장)은 7월4-9일 스위스 루가노에서 열린 휴먼프론티어과학프로그램(HFSP) 25회 기념식 및 수상자 심포지엄, 수상자 회의에 참석하였다. 8월6-10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재미한국과학기술자회의(UKC)에 참석하여 한국뇌연구원을 소개하는 행사를 개최하였다.



박기호 (임기정회원)

박기호 회원(서울의대 안과) 영국안과학술지(British Journal of Ophthalmology)의 부편집인(Section Editor)에 위촉되었다.



임현술 (임기정회원, 제3분회장)

임현술 회원(동국대의대 예방의학)이 2015년 기초의학 학술대회(제23회)의 진행을 주관할 조직위원장에 위촉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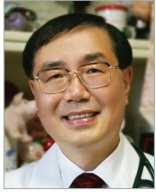
장성구 (임기정회원)

장성구 회원(경희대의대 비뇨기과학)은 "문학시대"의 공모에서 신인문학상을 수상하여 시인으로 등단하였고, 수상작 10편의 시(詩)는 문학시대 가을호(10월 초 발행)에 게재 예정이다.



정남식 (임기정회원, 집행이사)

제16대 연세대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에 정남식 교수가 선임되었다. 임기는 8월1일부터 2년이다.



정명호 (임기정회원)

정명호 회원(전남의대 내과학)은 6월 13-14일 제 12 차 광주국제심장중재술 학회를 광주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하였으며, 이달의 심전도, 심장병 이겨내기, Challenging Case of Interesting Cardiovascular Intervention 등 3권의 저서를 출판하였다.



채종일 (임기정회원)

채종일 회원(서울의대 기생충학)은 2014년 8월 14일 멕시코시티에서 열린 제13회 세계기생충학회 (International Congress for Parasitology; ICOPA) 정기총회에 참석하여 차기 국제학회 (2018년도 ICOPA)를 한국에 유치하도록 하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이와 함께 채 박사는 세계기생충학 자연맹(World Federation of Parasitologists; WFP)의 수석 부회장에 오르게 되었다.

후원 안내 및 후원 현황

후원 안내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은 회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은 재정자립을 통한 독립성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건전한 정책제안과 의학한림원의 각종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 개인 회원을 비롯한 단체, 기업 등 뜻있는 분들의 지원을 필요로 합니다.

여러분께서 지원해 주신 기금은 의학 발전 및 국민 건강증진을 위한 정책 포럼과 학술 포럼에 사용될 뿐 아니라 의학한림원 10주년을 맞이하여 의학한림원 발전을 위하여 소중하게 사용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하기와 같이 기부하여 주신 회원님들께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한분 한분의 소중한 참여가 의학한림원은 물론 우리나라의 의학 발전과 국민 건강증진에 소중한 밑거름이 되고 있음에 감사드리며, 많은 격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후원 현황 : 2013년 9월 1일부터 2014년 5월 31일까지 후원하여 주신 회원님들과 단체

단 체 : 연세의료원

명예회원

박 준 영(명예회원)

윤 대 원(명예회원)

서 교 일(명예회원)

신 창 재(명예회원)

종신정회원

김 병 길(종신정회원, 제4분회-소아청소년과학)

정 성 창(종신정회원, 제7분회-치의학)

김 현 주(종신정회원, 제4분회-소아청소년과학)

조 승 열(종신정회원, 제2분회-기생충학)

이 영 우(종신정회원, 제5분회-신경외과학)

지 제 근(종신정회원, 제2분회-병리학)

임기정회원

- | | |
|-----------------------------|----------------------------|
| 강 성 귀(임기정회원, 제4분회-내과학) | 송 지 영(임기정회원, 제4분회-정신과학) |
| 고 영 관(임기정회원, 제6분회-응급의학) | 안 세 현(임기정회원, 제5분회-외과학) |
| 김 광 원(임기정회원, 제4분회-내과학) | 유 승 흘(임기정회원, 제3분회-예방의학) |
| 김 병 국(임기정회원, 제4분회-내과학) | 이 승 규(임기정회원, 제5분회-외과학) |
| 김 영 백(임기정회원, 제5분회-신경외과학) | 이 재 승(임기정회원, 제4분회-소아청소년과학) |
| 김 우 현(임기정회원, 제1분회-생화학분자생물학) | 임 정 기(임기정회원, 제6분회-영상의학) |
| 김 진(임기정회원, 제2분회-해부학) | 임 효 근(임기정회원, 제6분회-영상의학) |
| 김 총 현(임기정회원, 제5분회-신경외과학) | 임 태 환(임기정회원, 제6분회-영상의학) |
| 김 희 중(임기정회원, 제5분회-정형외과학) | 정 연 태(임기정회원, 제2분회-해부학) |
| 남궁성은(임기정회원, 제5분회-산부인과학) | 지 훈 상(임기정회원, 제6분회-응급의학) |
| 박 병 주(임기정회원, 제3분회-예방의학) | 채 종 일(임기정회원, 제2분회-기생충학) |
| 박 귀 원(임기정회원, 제5분회-외과학) | 천 명 훈(임기정회원, 제2분회-해부학) |
| 박 정 한(임기정회원, 제3분회-예방의학) | 최 병 인(임기정회원, 제6분회-영상의학) |
| 선 경(임기정회원, 제5분회-흉부외과학) | 홍 성 태(임기정회원, 제2분회-기생충학) |

현재까지의 누적 약정금액 : 145,840,000원
소중한 후원에 감사 드립니다.

[후원 신청]

1. 기부 신청을 하시고자 할 경우 [기부약정서]를 작성하셔서 우편이나 팩스(0502-795-4030) 또는 이메일 (namok@kams.or.kr)로 보내 주시고, [기부금 납부 방법]에 따라 “직접 계좌이체 신청용” 또는 “CMS 출금이체 신청용”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2. 기부약정서는 의학한림원 홈페이지(http://www.namok.or.kr)에서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후원 계좌]

계좌번호 국민은행 : 387201-01-125011 기업은행 : 615-000067-01-057
 신한은행 : 140-010-113029 우리은행 : 1005-302-303549
 예 금 주 사단법인 대한민국의학한림원

[후원 문의]

대한민국의학한림원 / 우140-721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로 46길 33 (이촌동)
 전화 : 02-795-4030 / 팩스 : 0502-795-4030 / 전자우편 : namok@kams.or.kr

투고안내

대한민국의학한림원 뉴스레터는 회원 상호간의 유대 매체로서 의학 진흥과 학문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는 여러분의 대변지입니다. 보다 활성화 되고 폭넓은 여론의 광장으로서 명실상부한 뉴스레터 편집을 위해 회원 여러분의 투고를 기다립니다.

- 발 행 일 : 연 4회(3월/6월/9월/12월) 발간
- 접 수 처 : 140-721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로 46길 33(이촌동) 대한민국의학한림원 뉴스레터 편집실
 전화 : 02-795-4030 팩스 : 0502-795-4030 e-mail : namok@kams.or.kr
- 투고내용 : 제언, 회원 근황, 행사안내, 기타 홍보사항
- 원고접수 : 수시접수

대한민국의학한림원 뉴스레터 제14호

| 발 행 처 | 대한민국의학한림원 140-721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로 46길 33(이촌동) Tel. (02)795-4030 Fax (0502)795-4030
 | 발 행 인 | 남궁성은 | 편 집 인 | 김 진 | 인 쇄 | 아람에디트 Tel. (02)2273-2497